

'하나은행'과 '삼성'의 정반대 행보... 누가 웃을까

최대호의 맛있는 우리말

'양곱창'의 오해

'양곱창'이라 하면 보통 '양(羊)의 곱창'을 생각한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질문해보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답했다. 양곱창이란 소의 네 개의 위(되새) 중에서 첫 번째 위장을 말하는 것이다. 쫄깃한 것이 식감이 좋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머지 위는 별 집위·처님·막창 등으로 불린다.

사람들과 밥을 먹다 보면 "난 양이 적어서 많이 못 먹어"라고 하는 말을 종종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양이 '적은' 것인지 '작은' 것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이 적어서'라고 표현하는 것을 본다. 사실 양이 '적은'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맞다. '양을(量)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럴 때 '양'은 수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위장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그러므로 양이 적은 것이 아니라 '양이 작아서 많이 먹지 못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위장(腸)이 작아서 많이 못 먹는 것이다. 양곱창은 염소나 양의 곱창이 아니고 위장을 이르는 순우리말이다.

중부대 한국어학과 교수·한국어문화회 회장



스카이 View

임진영
금융팀장

이달 20일 밤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엘살바도르 축구 국가대표팀의 A매치(국가 대항전) 평가전이 열렸다.

4만여 명에 육박하는 관중이 들어와 매진이 된 경기장의 응원 열기 속에 경기는 1대 1 무승부로 끝났다. 그리고 경기 결과와 별도로 이날 경기에선 평소 A매치 평가전에선 볼 수 없는 이색적인 광경이 연출됐다.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 경기 시작 전 하프타임 시간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사인 하나은행이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국대 공식 후원을 2033년까지 10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고 이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승열 하나은행장은 직접 그라운드에서 경기장을 가득 채운 4만여 관중 앞에서 하나은행이 한국 축구 국대를 앞으로 10년 더 후원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를 기념하는 '2033 한국 축구 국대 유니폼'까지 공개했다.

하나은행이 한국 축구 국대를 후원하기 시작한 것이 1998년부터이니 올해로 26년째고 앞으로 10년간 더 후원사로 활동하면 한국 축구 지원을 36년간 이어가게 되는 셈이다.

그 기간 동안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7차례 열린 월드컵 경기에서 단 한 번도 빠짐 없이 모두 본선 진출에 성공했고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와 작년 연말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성공 등 2번의 원정 월

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처럼 한국 축구를 지탱하는 기업이 하나은행이라면 야구계와 농구계의 '큰 손'으로는 삼성이 있다.

삼성은 고 이건희 회장 시절부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를 비롯해 프로농구 삼성 썬더스 등 프로구단을 운영하고, 이들 팀은 모두 각 리그에서 수차례 우승을 차지하면서 감자로 군림했다.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와병에 들어가고 이재용 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서면서 삼성은 스포츠 지원을 대폭 축소했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모든 삼성 프로구단의 운영 주체가 삼성전자에서 제일기획으로 바뀌었다.

이는 사실상 삼성그룹이 프로구단 지원을 대폭 줄이겠다는 의미였다. 2015년부터 삼성 구단들은 우승을 노리던 상위권 팀에서 하위권을 전전하는 팀으로 전락했다. 특히 올해는 '삼성' 이름을 달고 있는 야구·축구·농구·배구 프로구단이 모두 리그 최하위로 추락하면서 '삼성 스포츠'의 몰락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이다.

무엇보다 프로야구 41년 시즌 동안 한국시리즈 8회 우승을 차지하면서 삼성 스포츠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삼성 라이온즈가 아직 올해 시즌이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 10개 구단 중 최하위인 10위까지 떨어진 것은 야구계에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는 우승횟수도 많을 뿐더러 팀 전력도 약화된 시즌에도 리그 출범 이래 41년 역사상 단 한 번도 꼴찌를 해 본 적이 없는 팀이다. 그런데 올해는 팀 40여 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리그 최하위라는 순위가 실제로 달성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보면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쾌거를 해 프로축구의 흥행과 정반대로 2023 월드컵 클래식 베이스볼(WBC) 부진, 리그 수준 저하 논란에 신음



(왼쪽부터) 김정배 대한축구협회 상근 부회장·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승열 하나은행장이 20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 엘살바도르 A매치 평가전의 하프 타임을 빌려 직접 그라운드에서 경기장을 가득 채운 4만여 관중 앞에서 하나은행이 한국 축구 국대를 앞으로 10년 더 후원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를 기념하는 '2033 한국 축구 국대 유니폼'까지 공개했다.

하나은행

하는 한국 야구계, 그리고 한국 프로농구의 잇따른 팀 해체와 흥행 부진은 결국 '하나은행'과 '삼성'으로 대표되는 한국 스포츠를 지탱하는 양대 기업의 상반된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최근 한국 축구의 부흥엔 30년 가까이 우직하게 외길로 후원을 이어 온 하나은행의 '독심'이 작용했다. 이에 더해 하나은행은 '10년 공식 후원 연장'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층 더 한국 축구 지원 강화에 나섰다.

반면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국 야구·농구의 동반 부진엔 삼성의 '스포츠 외면'이 결정타가 됐다는 판단이다. 과거 삼성의 선진적인 구단 운영은 야구와 농구 리그의 모범이 됐고, 다른 구단들도 삼성 구단의 운영 노하우를 받아들여 경쟁하면서 전반적인 리그 수준과 해당 종목의 국제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성이 사실상 '리그 선도' 역할을 포기하면서 지원 규모 역시 대폭 삭감됐다. 이는 삼성 구단의 성적은 물론이고 리그 전체와 해당 종목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졌다.

올해 삼성 라이온즈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다. 비단 라이온즈 팬들 뿐만 아니라 전체 야구팬과 농구팬들도 국제 대회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한국 국대팀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하나은행이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은 축구팬들은 축구 국대의 선전과 프로축구의 흥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10년 공식 후원 연장'이라는 하나은행의 '대국적인 결정'이 비단 축구계뿐만이 아닌 야구계와 농구계 더 나아가 한국 스포츠 전체에 자극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jjm@skyedaily.com

전세임대인 대출규제 완화 악용되어선 안된다



데일리 Talk

박상훈
산업부 기자

역대급 '역전세난'이 예고되며 전세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 2021년 전세가격 고점에 이륙한 계약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 하락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 물량 폭탄까지 겹치며 전세가격이 급락했다. 여기에 서울과 인천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문제까지 터졌다.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주택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역전세·전세사기·강통전세 우려에 임대차 시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월세 비중이 전세 비중을 앞질렀다. 자발적으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올해 3월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임대대가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차액 규모가 연내 24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전세 임대가구 총 116만7000가구 대다수는 보유 금융자산과 추가 차입 등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차입 후에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약 4.1~7.6%로 나타났다. 이를 숫자로 환산할 경우 8만8700가구에 달한다.

최근 서울에서는 집값 반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으나 이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것이며 지역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상반기 전세가격이 6.0% 하락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0%가 떨어지며 연간 8.0%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연은 하반기 입주 물량이 수요를 넘어서는 수준이며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시장에 주는 심리적 영향을 클 것으로 예상돼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대출에 한해 한시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다음 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전세금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역전세난이 한꺼번에 터져 뜻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를 낳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시 개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대출규제 완화 기간은 길어야 1년"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랜 기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상향 사다리' 역할을 해 온 전세제도 자체에는 죄가 없다. 무분별한 대출규제 완화를 방지하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이들 때문에 서민들이 피해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

'빛으로 빛을 막는다'는 따카운 시선도 존재하는 만큼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와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사는 '갬투자' 조장이나 역전세난 확산을 막기 위한 급한 불 끄기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철저한 전세금융 제도 보완과 개선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다.

psh@skyedaily.com

SkyeDaily

발행·편집인 조정진 주필 황종택
인쇄인 임채청 편집국장 고동석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7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15,000원/연 180,000원

대한민국 모두가 다시 힘낼 수 있도록 한수원의 에너지는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ENERGY UP!

[자영업자분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한수원의 무한 에너지로 힘이 되겠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으니까 괜찮아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마스크 벗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한국수력원자력주